

# 물 시장 개방에 대비한 지방상수도 관리자 연찬회 개최

※ 본 글은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협회주최로 대전광역시 삼성화재 연수원에서 개최된 '물 시장 개방에 대비한 지방상수도 관리자 연찬회'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방상수도 관계자들이 당면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를 실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삼성화재 연수원에서 전국의 지방상수도관리자, 환경부, 행정자치부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상수도 관리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 정책방향 및 운용계획을 설명하고 이어서 '국내 수도사업의 개혁과 상수도 서비스 표준화', '세계 물 시장 개방에 따른 현 실태와 대응방향' 및 '지방상수도 요금현실화 추진방안'에 대한 초청인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 활발히 진행된 분임토의 모습



그리고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상수도운영 우수사례 발표를 하였으며, 참석자 토론은 6개 그룹으로 나누어 발표주제 및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각 그룹의 좌장은 상하수도 전문가(대한상하수도학회장 현인환 교수, 고려대학교 최승일 교수, 경성대학교 이재복 교수, 경남대학교 김승현 교수,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 충남대학교 서동일 교수)가 맡아 토론을 주재하고 정리하였으며 각 그룹의 대표가 토론결과를 발표한 후 연찬회를 마쳤다.

이번 연찬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책설명 사항

환경부의 윤승준 수도정책과장은 농어촌 및 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여 균형발전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수도물 신뢰회복과 물 수요관리 및 시설운영관리의 효율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설명하였고, 행정자치부의 공효식 경영지원팀장은 지방상수도의 투자재원 확충과 수익자 부담원칙의 구현 및 사용자간 형평성 도모를 위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며, 지방상수도를 건설한 물 산업의 중추 지방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공사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설명하였다.

## 2. 주제발표 내용

KAIST 박희경 교수는 국내 수도사업의 개혁과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라는 주제로 국내 수도사업에서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사업구조를 개선하여 투명경영, 책임경영, 벤치마킹, 합리적 감시 및 평가를 촉진하는 한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시장 보호, 국제화 추진 및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해야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회계사는 세계 물 시장 개방에 따른 현 실태와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 수도사업 대형화,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 표준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반이 취약한 국내 수도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요금현실화, 독립적 경영이 가능한 경영구조 실현, 사업 광역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삼일회계법인 박태영 이사는 지방상수도 요금현실화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요금현실화 장애요인 분석결과 요금조정 절차에서 정치적 변수를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외생적 변수에 의한 요금조정은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며, 원가 수준과 사업규모별로 대안을 추진하여 원가수준이 높은 지자체는 보조를 통하여 총괄원가를 인하해야 하며 보조 재원의 조달 방안으로 지방상수도 이용합리화 부담금 신설 또는 물 이용 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 3. 토의 및 건의 사항

수도사업 경영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구조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조개편은 특별조치법과 같은 제도를 마련 후 당사자의 의견 존중과 이해 하에 추진하되 시설개량과 간이상수도 지원 및 전문기관위탁을 병행하고, 인력의 전문

화를 위한 인사운영의 개선과 구조개편을 관장하는 정부부처간의 업무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지방상수도 요금현실화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요금인상 기피현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대안이 필요하며, 가동률이 낮은 초기의 투자비용으로 인한 적자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하며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고 차등보조가 필요하고, 요금현실화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강화 및 법규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요금현실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현안사항 및 기타 사항으로, 현재 강화된 수질기준 충족이 어렵고 정수장 평가에 따른 개선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며 수도꼭지 수질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과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세척에 관한 기술지원과 정수생산 및 통합관리 시스템 표준화가 필요하며 기자재검인증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고 간이상수도 지역에 급수구역 확대하고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중복성을 개선하고 지자체 시설확장 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우리 협회에서는 연찬회 결과를 정부 및 각 참석 기관에 통보하여 정책수립과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9월 중순경에는 하수도 연찬회를 개최하여 상하수도 부문의 발전과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